“아시아게 신랑감 없나요”

metro
메트로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제2603호 www.metroseoul.co.kr

8년만에 ‘100-100클럽’ 가입

추석 열차표 예매행렬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8일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열차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약 7000여명의 인파가 몰린 서울역 승차권 예매 행렬은 예매시작 1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일부 귀성객은 전날 밤부터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날 서울역과 전국 주요 역에서 경부선 등 5개 노선 승차권 현장 예매가 이뤄졌으며 30일 오전 7시부터 호남선 현장 예매가 시작된다. /뉴시스

카이스트 동문의 ‘당돌한 사표’

잘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창업… 모바일 명함 앱으로 대박 낸 김범섭·최재호 대표

직장인의 필수품 명함.

사회 생활에 유용해도 명함 관리는 불편하다. 명함에 적힌 정보를 휴대전화에 다시 입력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다. 이제야 잦은 현대 사회에서 상대방의 명함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기도 힘들다.

명함을 모바일로 만들면 어떨까.

이같은 물음으로 명함 패러다임 전환에 도전장을 던진 (주)드라마앤컴퍼니 공동 창업자 김범섭(35) 대표와 최재호(31) 대표를 만났다.

모바일 명함 애플리케이션 '프로필미'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지난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3' 스타트업 공개 행사에서 19개 서비스 중 청중 인기투표 1위를 차지했다. 출시된 지 일주일밖에 안됐지만 유명 족 체인점 임직원 전원이 이 앱을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

김범섭 대표는 "온라인과 병행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이 콘텐츠가 명함"이라면서 "종이 명함은 제작·관리·휴대·정보 업데이트 면에서 불편해 모바일 명함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 대표는 "기존의 명함 앱은 종이 명함 정보를 스캔해서 IT 기기에 재입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재호(왼쪽) 대표와 김범섭 대표가 명함 앱 프로필미를 시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면서 "프로필미는 명함을 본인이 직접 모바일로 만들고 SNS로 공유하게 해 명함 제작·유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프로필미 모바일 명함은 프로필 이미지, 자기소개 글, SNS 링크들로 구성된다. 생성된 모바일 명함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 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다.

명함첩 기능을 이용하면 일목요연하게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명함첩에 등록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앱은 구글 플레이와 모바일 웹페이지(pt.ofeel.me)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 대표는 "프로필미는 딱딱한 종이 명함 형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와 사진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면서 "프로필 사진 기능은 상대의 얼굴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동문인 이들은 창업을 위해 인기 직장 그루폰코리아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과감히 관뒀다.

벤처 3년차 김 대표는 "벤처의 가장 큰 매력은 대기업과 다른 유연한 조직 문화와 신속한 실행"이라며 "프로필미 디자인도 기획 이틀만에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학 시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창업에 관심을 가졌다"면서 "벤처에서는 누구나 오너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니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모른다"고 웃었다.

사업 초기 단계지만 두 사람은 인터뷰 내내 자신감이 넘쳤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뭉친 벤처 창업이 늘고, 이들의 상품을 이용하는 문화도 활성화돼야 창조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일로는 벤처가 최고인 것 같아요. 후배님들, 사회 진출 1~2년 늦어지는 것에 조바심 내지 말고 창업에 뛰어드세요!"

/윤경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전셋값으로 내집 마련

정부와 손익공유하는 연 1%대 신형모기지 도입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에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 취득세 1~3% 영구인하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낮아진다.

아울러 기준시가 3억~4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모기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3조원 늘려 공급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한다.

현행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에 한해 연 4%의 금리로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상 소득 요건을 6000만원으로 올리고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또 매입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는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2.8~3.6%로 낮춘다.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목적으로 가입하는 모기지보험을 다주택자에게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서울우윳값 내일부터 220원 오른다

업계 '인상도미노' 불가피

제동이 걸렸던 우윳값 인상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가 오는 30일부터 원유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리겠다고 28일 밝혔다. 흰 우유와 가공유를 포함해 90여 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인상률은 11.1%다.

이날 발표에 앞서 서울우유는 가격 인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로마트 측과 인상을 벌여 우윳값 인상 폭과 시기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서울우유의 흰 우유 1ℓ들이 가격은 종전 2300원에서 2520원으로 9.56% 오른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도 흰우유 가격을 ℓ당 220원 선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유업체들이 주장하는 가격 인상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용수기자 hyscn@

압수수색 막는 통진당 관계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요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등은 이날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30여년 만의 '내란음모'

국정원,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 "유사시 총기준비" 녹취록 확보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은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정원 경기지부가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체포된 3명은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위쪽 가운데 통진당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을 가로막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호 고문 가족은 수사진이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갖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등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30여년 만이다. 특히 현역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반 국가 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정희 "유신시대 용공조작극"

반면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을 21세기에 벌인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새벽부터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준기자 mjk@metroseoul.co.kr

T-50 첫 추락사고 조종사 2명 순직 공군이 28일 광주 서구 세하동 부근 논에 추락한 공군 훈련기 T-50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이 사고로 공군 1전투비행단 소속 노세권 소령과 정민규 대위가 순직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다임러, 오토바이 특허 획득

1885년 8월 29일 독일의 고틀리프 다임러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 '라이트바겐'의 특허를 얻었다. 벤츠의 자동차 발명보다 1년 앞선 일이다. 이 오토바이는 1기통에 배기량 264cc, 0.5마력 엔진으로 최고 시속 11km의 유개 자전거 형태였다.

'최신영화 무료다운' 미끼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매달 1만6500원씩 13만명 66억 뜯겨

휴대폰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해 13만3000여명에게서 66억원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인터넷 컨텐츠 업체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업체 직원 2명과 프로그래머 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 13만3888명이 입력한 이름·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1만6500원이 결제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 다운', '각종 자격증 수험서' 등 사이트에 없는 자료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이용자들을 회원가입 페이지로 유인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결제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결제 피해를 입고 있던 6만2221명에 대해 즉각 결제 차단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과다한 민원이 접수돼 결제중단 조치 등의 제재가 우려되자 신규 사이트를 제작, 새로운 결제대행사와 계약한 뒤 기존 회원들을 신규 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를 계속하는 이른바 '결제대행사 갈아타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승리기자 crass100@metroseoul.co.kr

"엄마 마사지 최고" 여성들이 28일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보건소에서 생후 3~6개월 아기들의 건강 혈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사회복지협의회 '1004봉사단' 취약계층 희망나눔장터 등 맞춤서비스

매달 하루씩 'V-데이' 정해 방문 자원봉사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방철호)는 매월 1004지역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을 통해 'V-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V-데이'란 Volunteer(자원봉사자)-데이의 약자로 매월 지정한 날에 3~5개의 봉사단체가 취약지역 주민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V-데이에는 매번 다양한 봉사단들을 통해 보건 의료, 전기·가보수, 보일러점검과 수리, 도배 및 장판교체, 이미용, 줄어집기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V-데이는 '희망(애)터미지 나눔장터'와 함께 진행됐다. 100명이 넘는 나눔장터 이용자들 대상으로 한방 진료(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향제 만들기(아울림 봉사단), 네일 아트 및 손 마사지(나눔 동아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재가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개보수(서광봉사단), 도배 및 장판 교체(Y-윌리브 봉사단), 가구 통틀 작업(이스라엘 디자인 학원), 해충 방역(방제서비스 봉사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맞춤형 봉사활동은 평소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돼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박종권 단원은 "쉴 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탓에 어깨가 결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에 에너지가 남친다"며 연신 밝은 표정을 지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지역사회봉사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V-데이와 연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리기자

뇌파로 타인의 몸 움직여 사람간 '인터페이스' 성공

생각을 통해 분신인 나비족 전사의 몸을 움직이는 SF영화 '아바타'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언스 데일리는 미국 워싱턴주립대(UW) 과학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 사람의 뇌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그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이들은 캠퍼스내 한 실험실에 있는 라제시 라오 교수의 뇌파를 다른 실험실에 있는 안드레아 스토코 교수에게 인터넷으로 보내 스토코의 손가락을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게 했다.

이전에도 생쥐-생쥐, 사람-생쥐 뇌파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지만 사람 간 뇌 인터페이스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연합기자

지역 간판 더 깔끔해진다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내달부터 시행
업소 간판수 2개 이하로…광고물실명제 도입

부산시 간판은[illegible] 다음달부터 크게 달라진다.

부산시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간판관리 업무를 시에서 통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리기준을 보완했다.

조례에는 가로·세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완화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업소에서 달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기존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였다. 예외적으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있는 업소 등은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로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주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의 경우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한해 광고물실명제가 도입된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에게 달라지는 간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간판 리플릿을 제작해 다음달 초에 구·군 간판허가 신고대행 업계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코바코 대학생에 8000만원 장학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원창)는 지난 27일 '2013 코바코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illegible]명에 16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폐 변천사 '한눈에'

한은 부산본부 화폐전시관 내달 11일 개관

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강성윤)는 지난달 신축 이전한 문현동 새 사옥 1층에서 오는 9월 11일 화폐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 화폐전시관은 206㎡ 규모로 한국은행의 역할·역사에 관한 첨단 미디어영상과 600여점의 국내외 고화폐, 현용화폐 및 기념화폐 등이 전시돼 있다.

또 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시설도 마련했다.

전시장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고 개인 방문객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0명이상 단체는 사전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개관식에 이어 10월 11일까지 한달동안 화폐전시관 방문 고객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전시관을 소개할 경우 우수한 내용을 골라 별도 시상하는 등 개관 기념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화폐전시관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계자는 "화폐전시관이 화폐와 금융경제에 대한 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표방하는 문현금융단지의 대표적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은 부츠와 함께 28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3층의 한 구두매장을 찾은 여성들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구두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마술지도자 과정 개강…매주 화요일 강좌 진행

요즘 최고 인기! 재미있는 마술 어디서 배울까?

(사)한국 마술협회 부산시지부·한국매직쇼 교육협회는 오는 3일 제53기 마술지도자 과정을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10분~9시 총 2개월간 진행된다.

또 4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마술을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웃음건강박수 창시자로 잘 알려진 경력 33년의 마술사 조영춘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문의 051)441-7895 551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로 2가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쇄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김[illegible]
편집국장	조[illegible]
부산지사장·국장	김[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illegible]

[illegible]

'에코델타시티 성장' 학술대회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건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29일 오후1시 시청 대강당과 12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3회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학술대회'를 연다.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 학술대회는 학회회원과 공무원, 시민,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목기술연구회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산·학·관·연에 구조, 시공, 재난, 수리, 해양, 환경 등 각 분야의 학술 및 기술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대강당에서 개회식에 이어 특별세션으로 김영철 국가산업클러스터개발단장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내달 초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승인을 받는대로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 2018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팔도특산물 20% 저렴 우체국쇼핑 할인대잔치

부산지방우정청은 내달 11일까지 우체국쇼핑 추석 할인대잔치를 열고 팔도특산물 5500여종의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우리 농·수·축산물, 전통주, 수공예품 등을 취급하는 직거래장터로 전국 3600여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kr)과 모바일 우체국쇼핑을 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우체국 체크카드나 멤버십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10%(월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 적립 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머드급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기장에 오늘 문열어… 4만7000평 부지에 국내외 180개 브랜드 입점

신세계사이먼이 29일 전국 광역도시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프리미엄 아울렛은 여주, 파주에 이은 3호점으로 부지면적 약 15만5000㎡(약 4만7000평), 영업면적 약 3만3000㎡(약 1만평), 주차대수 3500대 규모의 매머드급 아울렛으로 180여개의 국내 및 해외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한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이번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을 계기로 기존 백화점, 면세점, 호텔 등 신세계그룹의 유통·관광 채널의 시너지 및 연계성을 강화해 입지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000억 이상 경제효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난 6월 채용박람회를 개최, 부산지역에 12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연 280억원의 지역 소득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또 연간 방문객수도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 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지역축제 및 지역특산물직거래장터 지원, 지역단체 후원,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권 대표 아울렛 쇼핑 메카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이탈리아 투스카니 콘셉트의 건축양식을 도입했다. 건물 외관뿐 아니라 내부 역시 유럽 해안지방의 이국적 정취가 느껴지도록 연출했다.

특히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180여개의 카테고리별 인기브랜드가 균형감 있게 갖춰져 있다.

패스티지에서 하이엔드에 이르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는 물론 아웃도어, 생활까지 장르별 최고 수준의 MD(상품기획) 구성으로 경남권을 대표하는 아울렛 쇼핑 메카로 탄생한 것.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아르마니, 분더샵,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를 비롯해 코치, 마크 제이콥스, 에르메네질도 제냐, 이자벨 마랑, 로베르토 카발리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다.

또 띠어리, 비너시브루노, 산드로, DKNY 등 글로벌 선진 패션브랜드들 대거 선보이는 한편, 국내 여성패션에서도 타임, 구호, 미샤, 오브제 등 대표적인 탑브랜드를 고르게 유치했다. /뉴시스

신세계사이먼의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29일 부산 기장군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을 예정이다. 28일 오전 프리오픈 행사에 찾아온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부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시민 20명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들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중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50만원,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유색벼로 그린 '우포누리' 28일 경남 창녕군이 우포늪의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와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우포늪 인근 대대들녘에 유색벼를 이용한 창녕군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우포누리'를 논 그림으로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녕군 제공

어린이 위한 오감만족 쿠킹클래스 UP!

롯데호텔부산 프로그램 마련… 내달부터 토요일마다

롯데호텔부산은 오는 1일부터 어린이를 위한 실내 체험 프로그램 '오감만족 쿠킹클래스 UP!'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되며 '우리 아이 즐거움도 UP! EQ도 UP! 가족 사랑도 UP!'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대상은 5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다.(투숙객 전용)

눈, 코, 입, 귀가 즐거운 쿠킹클래스에 아이들이 직접 밀가루 반죽부터 완성본까지 만들어 볼 수 있어 감성지능(EQ) 발달에도 좋고, "우리 가족 얼굴 컵케이크 만들기"와 같은 클래스는 가족 사랑을 더욱 느끼기에 충분하다.

클래스는 매주 동물 농장 쿠키 만들기와 가족 얼굴 컵케이크 만들기 중 하나로 구성되며, 참가비는 어린이 1인당 2만원이다.(세금 및 봉사료 포함) 문의 051-810-1100

향토기업·지역문화계 '상생 하모니'

BN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음악회 31일 개최

8월의 마지막 밤, 향토기업과 지역 문화계의 뜻 깊은 상생 하모니가 부산에 울려 퍼져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향토기업 BN그룹은 오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BN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6회 기업사랑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사랑음악회는 BN그룹이 '문화가 강한 도시 부산'을 지향하며 2008년부터 매년 초가을 무렵 선보이고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회다.

향토기업이 지역민을 위해 대규모의 클래식 콘서트를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BN그룹은 정통 클래식 연주회가 뿌리내리기 척박한 여건에서도 6년 연속으로 대형 음악회를 개최해 클래식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친밀감을 높여, 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가 부족했던 부산의 문화 수준을 한층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공연에서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봉을 잡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의 연주에 부산경남출신의 소프라노 전지영·피아니스트 김정권·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첼리스트 양욱진 등이 협연한다.

지난 5년 간 기업사랑음악회 무대에 서온 오충근 지휘자는 부산이 낳은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꼽힌다.

BN그룹 조의제 회장은 "기업사랑음악회가 부산 지역의 손꼽히는 문화메세나 행사로 자리 잡은 데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BN그룹은 향토기업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한 뜻하여 부산의 문화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1884.52 (-1.32)	517.44 (-6.85)

금리	환율
2.93 (-0.01)	1118.00 (-0.50)

보험사 지급 여력비율 34%P 하락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73.7%로 전분기 307.8%보다 34.1%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 RBC는 277.7%로 39.8% 포인트가 하락했고 손해보험사 RBC는 264.3%로 20.6%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은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평가 손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는 증자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지기자 ejb@metroseoul.co.kr

상법개정안 재검토 '재계 달래기'

朴대통령-10대 그룹 총수 간담회

朴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 안되게"… 허 회장 "기업 투자·고용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박근혜 대통령,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김승연 한화 부회장. /뉴시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민주화가 일부 재검토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28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김승연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 1, 2위인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정오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경제 민주화와 상법 개정안 논의도 이뤄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30대 그룹은 연초 대비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고용 실적은 현재 62%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연간 투자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상법 개정안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유은회기자 yukue@metroseoul.co.kr

뉴스&뉴스

하나SK·외환카드 통합 만지작

● 하나금융지주가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부문을 자본금 1조 4000억원 규모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부문 실무자로 구성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외환은행이 자본금 70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나SK카드가 보유한 자본금 6800억원과 합하면 통합법인은 총 1조 4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 6개월 만에 증가

● 수도권의 신규 미분양 주택이 약 4000가구 늘어나는 등 전국 미분양 주택이 반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7672가구로 전달보다 2600가구(4%)가량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1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예고된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7월 다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해 7월 3만5336가구로 6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도 루피화 사상 최저치 경신 인도 루피화가 28일 오후 1시 59분(한국시간) 달러당 68.755루피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가운데 서울 역삼동에 설치된 월드데이터지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루피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출구전략 전망에 외국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누수시 평생 보증 서비스

싼타페와 아반떼의 누수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가 평생 수리를 공약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아반떼에 문제가 생길 경우 평생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내 누수 현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 기간에 상관없이 폐차 때까지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반떼는 엔진룸 누수 현상으로 인한 단 한 건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품질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 평생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싼타페와 아반떼는 '수타페' '수반떼'라 불리며 혹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트렁크에서 물이 새는 현대차 싼타페에 대한 리콜 여부를 10월 중순께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자동 트렁크나 뒷좌석에서 비가 새는 결함이 확인된 신형 싼타페에 대해 무상 수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정은지기자 ejb@

"순익보다 매출 좋은 기업 주가 수익률이 더 좋다"

대외 리스크로 인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국내 증시에서 실적 기대감 등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1900선 아래로 밀려며 증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의 목표주가는 상향조정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유망주 중에서도 순이익보다 매출이 호조를 보이는 업체를 더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28일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내 증시에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상위 5%인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순익 5%인 기업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도 이런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최근 들어 매출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간의 주가가 확연히 차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경기 상황이 정상적인 사이클에 놓여 있으므로 매출이 순익보다 주가에 더 훈풍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다우30지수의 경우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을 유지한 2001~2007년은 매출 호조 기업이 순익 상위 기업보다 주가가 높았으나 경기침체기였던 2008~2010년에는 반대로 순익 호조 업체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며 "하지만 2011년 이후 경기 싸이클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매출 상위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매출액을 고려한 투자전략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매출액 전망치가 사상최고를 경신하며 ▲매출액이 1조~7조원 범위 안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망 종목으로는 파트론·인터플렉스·제일기획·한라비스테온공조 등을 꼽았다. /김현정기자

30대그룹 하반기 투자 는다

국내 30대 그룹이 하반기 투자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산총액기준 상위 30대 그룹의 2013년 투자 고용 계획과 상반기 진행실적을 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총 154조7000억원의 투자와 14만700명의 고용을 계획했다. 이는 올해 연초 계획에 비해 투자는 4%(5조9000억원), 고용은 10%(1만3000명)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올 상반기 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과 주요 프로젝트의 하반기 편중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투자, 정부의 1·2단계 투자 활성화대책을 통해 투자 확대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30대 그룹의 올해 총 고용 계획은 14만700명으로 연초보다 1만3000명 가량 늘었다. /정동희기자

귀성길 '아車' 할 땐 늦으리!

다가오는 추석 꼼꼼히 챙겨봐야 할 보험상품 뭐가 있나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명절이 즐겁기도 하지만 장거리 운전과 교통 체증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만드는 보험 상품을 알아보자.

본인 자동차로 고향길에 오른다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깎기 위해 운전가능 범위를 축소해 가입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줄일 수 있어도 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2만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로 7일, 10일, 15일 중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가입일의 자정(24시)부터 종료일 자정(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났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로 연락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대여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외에도 올 한가위에는 독특하게 '효도보험' 상품을 부모님께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효도보험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간병보험, 상조보험 등이 있는데, 뇌혈관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한다.

/김민지기자 min @metroseoul.co.kr

카드 부가혜택 맘대로 못줄여

앞으로 주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보배기자

비정규직 차별 98개 사업장 적발

임금 미지급 등 129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개 중 3곳에서 임금 미지급 등 정규직과의 차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금융·보험 및 병원 업종 31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1.4%에 해당하는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보험 업종은 39개사 50건, 병원은 38개사 48건, 기타 21개사 31건의 차별사례가 발견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교통비·피복비 미지급(신한은행), 임금차등지급(군산의료원·서원대·중앙대), 연말성과금 차등지급(한국전자금융), 중식비 미지급(남양주축협·인천강화축협), 상여금 미지급(메트로병원), 효도휴가비 차등(동아대의료원), 업무활동비·출장비 미지급(제주농협·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등이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 66곳에 대해 108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6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한 3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 지도를 했다. /김형이기자 hkim1@

하반기 대기업 채용 작년보다 15% 증가

208개사 2만2000명 뽑아… 전기·전자업종 7700명 가장 많아

소니 알파 미러리스 카메라 공개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신제품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NEX-5T와 E마운트 전용렌즈 2종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는 전기·전자업종을 노리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공기업 제외) 가운데 373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4년제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8개사가 총 2만1933명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73개 대기업이 신입사원 1만8974명을 뽑은 것과 비교하면 15.6% 늘어난 수치다. 다만 각 회사의 평균 채용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110명)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채용 예상 인원은 전기·전자(21개사)가 77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철강(18개사) 2576명, 자동차·운수(19개사) 2414명, IT·정보통신(8개사) 1600명, 식음료·외식(20개사) 1556명, 금융(28개사) 1423명, 조선·중공업(7개사) 1400명, 유통·무역(20개사) 1021명, 건설(20개사) 811명, 제조업(25개사) 7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66.7%), 식음료·외식(64.5%), 금융(59.6%), 전기·전자(58.3%), IT·정보통신(57.1%), 건설(54.1%)이 다른 업종에 비해 하반기 대졸자 공채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기계·철강(43.2%), 제조업(38.8%), 자동차·운수(37.8%)는 하반기에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서국기자 kmkee@metroseoul.co.kr

부동산단신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서울 강남 (illegible)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8층~지상19층 1개동 규모 총 728실로 구성되며 지하2층~지상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4층부터는 전용면적 20~29㎡의 소형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2015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2)583-3880

6개동 송도 스마트밸리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대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첫 지식산업센터인 송도 스마트밸리가 주목받고 있다. 지상 23층의 아파트형 공장과 지상 28층의 기숙사동, 근린생활시설까지 총 6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연면적 23만㎡로 수도권 최대급의 복합단지다. 문의: (032) 8585-085

현대캐피탈 전화 한 통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

출퇴근길에 간편하게 대출 가능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서류·무방문으로 인터넷, 모바일앱 등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한 통만으로 30분 내 빠른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이렉트론은 최저 5.75%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영향 없이 대출한도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1588-5330

이라크,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적극 지원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이라크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 줘 화제가 되고 있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사업의 해외 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종이문서 외 온라인 통관문서도 정식으로 인정돼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화 측은 "이라크는 오랜 전쟁으로 사회 시스템이 미비해 서류 분실 시 자재가 항구에서 몇개월씩 묶여있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통관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현정기자 hyjung

프리미엄 헤드폰H6·이어폰H3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뱅앤올룹슨의 신제품 헤드폰 베오플레이 H6, 이어폰 베오플레이 H3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사람 귀의 모양과 굴곡, 소리가 형성되는 방식을 연구해 출시한 제품이다. 가격은 각각 69만원과 43만원. /연합뉴스

美 사흘간 치고 빠지기?

시리아 공습, 정권 축출보다 '겁주기'… 제한된 지역만 미사일 공격 가능성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미국 뉴멕시코주 카운티에 사는 동성 커플이 27일(현지시간) 동성결혼 승인서를 받기 위해 카운티 사무소로 몰려와 기뻐하고 있다. 하루 전 베나릴로 카운티의 법원은 동성결혼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P 연합뉴스

새로운 '중동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닐까.

화학무기 공격이 의심되는 시리아에 미국 등 서방국들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국가재정에 전쟁 피로감까지 겹친 상황이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한적 개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NBC는 27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29일께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제한된 지역에 집중해 아사드 정권에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시리아에 제공된 미사일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주코프스키의 국제항공우주박람회(MAKS) 에어쇼 개막식장에 시리아에 제공된 러시아제 '북(BUK)-M2' 방공 미사일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한된 범위와 기간에 걸쳐 군사개입을 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또다시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군사개입을 감행하는데 따른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최대 우방인 러시아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게다가 알 카에다와 연계된 '알 누스라 전선'이 반군세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점도 미국엔 골칫거리다.

일각에서는 '제한적 개입'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일회성 보복 공격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다"며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적 군사개입을 해야 외교와 협상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시리아 간의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부 지지자들을 자처하는 시리아 전자군(SEA) 해커들이 28일 트위터와 뉴욕 타임스(NYT) 웹사이트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사이버 공격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지자 긴급히 대체 사이트를 운영했다. 트위터는 2시간 동안 공격을 받았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日보수언론, 반총장 '벌떼공격'

'일본 정치인 성찰' 에 사설까지 동원해 "중립 위반"

극우바람이 갈수록 거세지는 일본에서 보수언론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6일 서울 기자회견을 사설까지 동원해 비판하고 나서 반축을 사고 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다'는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자질까지 거론하는 무례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자 '자질이 의심스러운 편향 개입 발언'이란 사설에서 "중립성, 공평성이 요구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귀를 의심케하는 일방적이고 문제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무총장 회견은 유엔 공용어인 영어나 프랑스어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부분이 한국어로 이루어졌다"면서 "국제기관에 적을 두고 있다면 한국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라고 한국에 말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산케이신문도 반총장의 발언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대일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편을 드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은 내정간섭에 가까운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반 총장에게 진의를 묻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바디페인팅도 예술'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예술적 바디 페인팅 전문가 앤디 골럽이 누드모델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퍼포먼스는 예술적 목적일 경우 바디 페인팅과 다수 앞에서의 누드 표현을 허용하는 법규 등을 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AP 뉴시스

허리디스크 수술 않고 30분만에 치료

꼬리뼈내시경·플라즈마감압술 등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 효과적

척추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분야다. 기본적으로 척추를 비롯한 골격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다. 자연적으로 여러 질환이 생겨 수술을 한다고 해도 증상이 완벽하게 없어지거나 병을 앓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척추질환 치료는 환자가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비(非)수술 치료다. 말 그대로 수술 없이 간단한 시술만으로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세바른병원의 정성삼 대표원장은 "국소마취를 하고 30분 내외로 진행되는 비수술 척추 치료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고, 수술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환자들의 치료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세바른병원의 김주현 대표원장과 정성삼 대표원장이 플라즈마감압술로 허리디스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전신마취, 피부절개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비수술 척추치료

대표적인 비수술 척추치료 방법은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을 들 수 있다. 꼬리뼈로 지름 2mm, 길이 40~50cm의 아주 미세한 관(카테터)을 삽입하는데, 이 카테터에는 내시경이 달려 있어 CT나 MRI로도 파악하기 힘든 병증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이후 레이저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약물을 투입해 유착, 염증 등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술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요통과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특히 적합하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염증이나 유착 등으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은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플라즈마감압술은 1mm 정도의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튀어나온 디스크 내부에 위치시킨 다음 플라즈마광을 발생시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세바른병원의 김주현 대표원장은 "플라즈마광은 환부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밀려나온 디스크만 융해시키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What's New health food

휴대 간편한 6년근 홍삼액

천지양이 간편하게 휴대하며 홍삼농축액을 마실 수 있게 고안한 '**홍삼정 에스**'를 최근 출시했다. 6년근 홍삼을 저온농축 신공법으로 추출, 기존 홍삼정 농축액 제품과 효능은 같지만 맛은 보다 부드러워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사포닌의 함량에 따라 '천 에스', '지 에스', '양 에스'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5g 30포에 4만5000~6만원. 문의 www.e-hongsam.com

한약재 추출물 유산균 발효

바이오벤처기업 웰빙바이오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똥쑥과 천년초 등 한약재 추출물을 특허 받은 SJP유산균으로 발효한 '**청인개똥쑥발효효소**'를 선보였다. SJP 복합유산균은 장내에서 18시간 동안 유익균을 3만배 증식해 장내 유해균은 없애고 장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500g에 14만5000원. 문의 www.bio119.co.kr /전효순기자

접종 후엔 병원서 30분 휴식

경부암 백신 포스터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안내문과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접종 효과와 대상, 접종 전·후 유의사항, 해외 안전성 정보 등을 담았다.

안내문에 따르면 만 9~26세 여성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백신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해 듣고 접종하는게 좋다. 또한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약 30분간 휴식하며 알레르기 반응은 관찰하고, 통증·가려움증·발열 등 이상반응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질병관리본부(nip.cdc.go.k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llegible]

암·당뇨 치료법 앱 선봬

다국적 제약사 한국릴리가 암과 당뇨병 극복에 도움을 주는 환자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지피지기 암치료'와 '당뇨 길잡이'를 선보였다.

지피지기 암치료에는 암 정보·나의 치료·힐링 공간·정부정책과 FAQ의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당뇨 길잡이 앱은 환자는 자신의 체중과 키 등 기본 정보를 설정한 뒤 혈당 수치와 섭취 음식, 운동량을 입력하면 혈당·식사·운동요법을 관리할 수 있다.

metro entertainment

몸매·피부관리의 '3박자' 필라테스·요가·수분충전

뷰티 패션계 새 아이콘 떠오른 톱모델

바바라 팔빈

- 생년월일 1993년 10월 8일
- 출생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 키 171cm
- 데뷔 2010년 2월 밀라노 패션위크 프라다 쇼
- 소속 IMG Models
- 현 전속모델 로레알파리 샤넬(르 블랑) 빅토리아시크릿

전세계 뷰티 패션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톱모델 바바라 팔빈(19)이 26일 3박4일 일정으로 내한했다. 그는 상큼한 마스크와 볼륨있는 몸매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다. 세계적인 프랑스 뷰티 브랜드 로레알파리의 최연소 전속 모델로 발탁돼 처음 한국을 찾은 것이다. 한국 다음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난 팔빈은 톱모델답게 다양한 포즈를 척척 취하면서 그만의 뷰티 노하우를 털어놨다.

/박현현 기자 rok8427@metroseoul.co.kr

– 내한 소감과 한국에 대한 인상은

한국인들은 유머 감각도 있고 진실된 것 같다. 나중에 아시아계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 국내 톱스타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알고 있는 스타가 있나

SNS로 빅뱅의 지드래곤과 많이 만났다. 내가 빅뱅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는 소문이 나서 그들 더욱 잘 안다. 나와 닮은 사람이 출연했던 거였는데 주변에서 다들 나냐고 물었었다. 싸이도 당연히 알고 있다. 오늘 출연한 SBS E채널 '서인영의 스타뷰티쇼'를 통해 만난 서인영 씨는 아름답고 스타일이 좋아서 인상이 깊었다.

– 런웨이 이래의 실제 모습과 평소 관심사는

평소엔 편한 복장을 즐겨 입는다. 성격은 유쾌하고 농담도 잘한다. 내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 활동적인 편이라 쉴 때는 노래를 부르거나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9세때부터 13세까지 축구를 했는데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만뒀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모델이다. 미모와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필라테스와 요가가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피부는 어려서 아직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물론 촬영이 없는 날에는 수분 관리를 열심히 해준다. 또 아무리 바빠도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제2 미란다 커로 주목받고 있다. 롤모델이 있나

미란다 커는 모델계의 우상이라 기분 좋다. 그러나 딱히 롤모델은 없다. 난 단지 바바라 팔빈일 뿐이다.

– 어린 나이에 데뷔해 샤넬과 로레알파리 등 최연소 모델 기록을 써 나가고 있다

최연소라는 것은 부담보다는 큰 동기 부여가 되는 수식어다. 스트레스는 때로 있지만 늘 즐기면서 일하고 있다.

– 톱모델이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게 좋다.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나중에 한국에 개인적으로 다시 와보고 싶다.

– 모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인생은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린 나이에 톱모델로 활동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다

셀레나 고메즈와 저스틴 비버 사이의 결별이 나 때문이라는 헛소문은 정말 힘들었다. 비버의 팬들에게 협박성 메일까지 받았다. 사실이 아니기에 침묵했더니 더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유머를 감당해야 하는 것 같다. 단, 침묵하기보다 나서서 행동을 취하고 팬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 게 현명하다.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은 미소 최연소라는 수식어 큰 동기부여 롤모델은 없다…난 단지 나일뿐 비빔밥 좋아…훗게 남편 얻고파

"

–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으로부터 배우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올 2월 아카데미 시상식의 애프터 파티에 참석했다 소개받을 기회가 있었다. 공식적으로 작품을 제의받은 것은 아니고, 감독님이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기에 "좋다"고 대답했다. 기회가 된다면 연기를 해보고 싶다.

– 한국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 속에 품어온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사진/서보형(가운데 제외)·디자인/김하랑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반짝 SALE
Special Day and Time
매일 매일 특별한 시간, 놀라운 가격!
반짝 세일이란?
경쟁력 있는 항공 요금으로 생성된 출발일이 결락한 상품을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실속있는 상품 구매 서비스입니다.
최저가 도전! 반짝 중국여행

브로드웨이 뮤지컬 두편 초연…팬들 설렌다

'보니앤클라이드' '구텐버그' 무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작 두 편이 나란히 국내에서 초연된다.

히트작 "지킬앤하이드" "몬테크리스토"의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참여한 '보니앤클라이드'가 다음달 4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기에 실존했던 남녀 2인조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의 범죄 행각과 사랑 이야기를 토대로 한 작품이다. 1967년 만들어진 동명의 영화가 원작으로,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로는 2009년 만들어져 2011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다.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클라이드 역에 엄기준과 한지상, 샤이니 키,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이 캐스팅돼 4인 4색의 다채로운 매력을 펼쳐보인다. 도도한 내면을 지닌 주체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자 클라이드의 연인인 보니 역은 리사와 다나, 안유진이 맡았다. 문의 02)764-7857

앞서 이달 각일 같은 공연장의 중극장 블랙에서는 '구텐버그!'가 무대에 오른다.

버드와 더그라는 두 신인 뮤지컬 작곡가와 작가가 자신들이 만든 작품 '구텐버그'를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그린 극중극 구조의 2인극이다.

예술성과 흥행성을 갖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는 오프브로드웨이 작으로, 2006 뉴욕뮤지컬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뮤지컬 대본 부문과 독특한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했다.

미국, 영국, 핀란드, 호주에 이어 전세계 다섯 번째로 공연되는 한국 공연에는 송용진, 정상훈, 정원영, 정문성 등이 캐스팅됐다. 문의 02)3485-8700

/박찬원기자 ...@metroseoul.co.kr

명성황후 색다른 해석 가무극으로 만나볼까

열강들의 칼날 속에 비극적인 생을 살았던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색다르게 해석한 창작극이 관객들과 만난다.

서울예술단이 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를 다음달 22~29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1930~4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낡은 현진사진관을 배경으로 명성황후의 삶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판타지물이다. 명성황후의 사진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의 삶과 시해 사건을 현재 알려진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장르를 넘는 감각적인 음악,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된 무대 및 의상으로 볼 거리도 선사한다.

명성황후 역은 뮤지컬 '아이다' '서편제' 등에 출연한 차지연이 맡았다. 김도빈과 박영수가 김옥균과 고종 역으로 나오고, 뮤지컬 '헤드윅'의 최연소 헤드윅으로 발탁된 손승원이 가상의 인물인 휘를 연기한다.

연출을 맡은 이지나 씨는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모던하고 파격적인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02)523-0986

/박찬원기자

중요무형문화재 기증품 특별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작고 보유자의 명예보유자의 유품 소장품 특별전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전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번 기증전에선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정달영이 생전에 연주한 가야금, 제30호 가곡 보유자 홍원기가 생전에 친필로 작성해 제자들을 가르치던 악보,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고 김점순 보유자가 평생 사용한 베틀(사진)과 물레 등이 전시된다.

유산원은 특별전에 앞서 이달 30일 기증식을 마련한다.

전어 값이 비단 한 필?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전어는 가을이면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먹는 생선이기에 얻은 이름이다. "육질이 부드러워 씹어 먹기가 좋으며 기름이 많고 맛이 좋다. 상인들이 소금에 절여서 서울로 가져와 파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 좋아하므로 사는 사람이 값을 생각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한다." 난호어목지에 나오는 설명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가을 전어는 수요가 많아 값이 비싼 줄 모르고 팔렸다. 조선 중기 경주에서는 가을 전어를 명주 한 필을 주고 바꾸고 평양에서는 가을 숭어를 정포 한 필로 바꾼다고 했다.

이전에는 경상도에서 전어가 많이 잡혀 경주에서 진상했지만 지금은 전어가 잡히지 않음에도 진상품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단 한 필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시장에서 전어를 사다가 한양으로 진상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전어가 주로 잡히는 곳은 서해안이다. 지금도 가을이면 주로 충남 서천의 홍원항, 전남 광양의 망덕포구, 전남 보성의 율포항 등에서 전어축제가 열린다.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에서 모두 특산물로 전어를 꼽았던 지역이다. 그런데 전어를 공물로 바쳤던 곳은 엉뚱하게 경주였으니 현지 전어 시세가 비단 한 필 값까지 치솟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을이면 전어 찾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도 가격이 비싸졌다.

조선 중기 쇄미록에도 "듣자니 시장에서 큰 전어 한 마리의 값이 쌀 석 되 값"에 이른다고 적었다. 가을 전어 값 비싼 것이 각종 기록에 수록될 정도였으니 돈(錢) 생선(魚), 전어라는 이름이 지어질 만도 했다. 요즘 때 이른 풍어로 전어 값이 많이 떨어졌다니 사 먹는 입장에서는 반가울 뿐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1		9	
		9	8	5				7
5	1			6			4	2
4	7			9			6	5
7				4	6	8		
	3		2					
		1					2	

6			8		9	1		
7		2		5	1			
				3				
	7	1					3	2
4	3					9	1	
				7				
			6	9		2		5
		7	3		8			4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뉴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재역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남편 경영지도사 시험 이번엔? 운이 교육으로 흘러 합격할것

진달아 남자 48년 11월 24일 음력 오전 3~5시 /여자 54년 6월 23일 음력 오전 9~11시

Q 남편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듭니다. 남편이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경영지도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난해에 떨어진 전력이 있는데 올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A 하늘에는 예측하기 힘든 풍운의 조화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날마다 밤마다 순환되며 찾아오는 길흉화복의 궤운이 있습니다. 재복 역시 될 수 없어서 남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일도 내가 하면 안 되고, 남들은 끝만 되는 부동산 투자도 내가 시작하면 땅값이 갑자기 떨어져서 애를 먹이기도 하니다. 남편은 전답에 씨가 내리는 격 아니 식록이 풍부하고 일을 시작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진력이 부족해 용두사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재능이 높아도 타고난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인성(교육)으로 흐르고 있어 이번에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자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미래 생각한다면 생각 바꿔야

윤편이 필요해 여자 78년 9월 27일 양력 오전 11~12시

Q 결혼한 지 1년 반. 주위에서는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입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어린아이를 보면 귀여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좋지 않은 뉴스를 보면 없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식운이 있나요?

A 부부가 합방을 할 때는 병정일(丙丁日)을 피해야 합니다. 매월 상현일(上弦日) 음력 7~8일이나 하현일(下弦日) 음력 22~23일 보름, 그믐 초하루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바람이 심한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안개가 짙게 낀 날, 너무 춥거나 더운 날, 천둥 번개가 심하거나 온 천지가 어두운 날, 월식, 일식, 무지개, 지진이 있는 날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월경을 고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남편은 기(氣)와 정(精)을 모아야 2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니 모두 하늘의 이치이니 100일 기도를 올려보세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두 분 모두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9일 (음 7월 2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오랜만에 옛사람 회포 푸니 즐겁다. **60년생** 매매나 투자 모두 길한 날. **72년생** 어려운 고비는 순간적으로 넘어간다. **84년생** 나이 많은 사람과 시비 조심.

소 — **49년생** 일을 맡겼으면 관망하라. **61년생** 재운이 열려 뜻밖의 수입이 생긴다. **73년생** 상사와의 갈등은 양보로 풀어라. **85년생** 욱하는 성질 때문에 관재 생길라.

호랑이 — **50년생** 움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62년생** 이득이 있어도 정도 아니면 물러서라. **74년생** 서두르면 문서로 인한 어려움 생긴다. **86년생** 인사만 잘해도 귀한 하루.

토끼 — **51년생** 고집만 찬다는 외톨이 신경 써라. **63년생** 이성과의 돈거래 후회뿐. **75년생** 후원도 구별해서 받아라. **87년생** 면면과 오해가 생기지만 사람엔 변화없다.

용 — **52년생** 서두르다간 목에 더 안 든다. **64년생** 주장이 강하면 시비 생기니 겸손해라. **76년생** 개똥도 약에 쓰려니 없는 격. **88년생** 뜻을 이루려면 자존심 버려라.

뱀 — **53년생** 겸사 뒤에 음해 조심할 것. **65년생** 의욕이 강하면 위험요소도 크다. **77년생** 결정했으면 뒤면 보고 전진하라. **89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되레 독이 된다.

말 — **42년생** 오라는 곳 많아 즐겁다. **54년생** 아끼는 사람이 어려운데 못 도와준다. **66년생** 최선 다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78년생** 작은 성공에 잠재력 인정받는다.

양 — **43년생** 자녀가 서운하게 해도 참아라. **55년생** 좋은 일 끝에 실수 조심하라. **67년생** 반가운 벗들과 회포 푸니 즐겁다. **79년생** 뜻밖의 재물 들어와 흡족할 하다.

원숭이 — **44년생** 집착이 지나치면 다툼 생긴다. **56년생** 아랫사람과 다투지 않도록 조심. **68년생** 생각이 많으면 엉뚱한 악수 둔다. **80년생** 윗사람 기대가 커서 힘든 하루.

닭 — **45년생** 지식 자랑은 자리 봐가며 하라. **57년생** 근심 없는 의욕에 일만 꼬인다. **69년생** 목표 달성하려면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81년생** 이성과 인연 이뤄진다.

개 — **46년생** 멀리서 희소식이 날아든다. **58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니 기대하라. **70년생** 돈거래는 적자가 예상된다. **82년생** 상사의 극진한 칭찬에 피로 가신다.

돼지 — **47년생** 순리 따르면 만사 순조. **59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71년생** 그대 몫을 노리는 불청객 많으니 조심. **83년생** 공짜로 얻으면 시비가 생긴다.

카라 한국·일본 동시공략

정규앨범 예약판매 차트 1위

걸그룹 카라가 한국과 일본에서 정규 앨범을 동시에 발표하는 파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새 앨범인 정규 4집 '풀 블룸'을 1년 1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표한다. 정규 앨범으로는 2011년 9월 '스텝'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앞서 28일 일본에서 9개월 만의 새 앨범 '판타스틱 걸즈'를 출시했다.

디지털 음원 중심의 음악시장에서 정규 앨범 출시도 드문 일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다른 정규 앨범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다.

양국 동시 앨범 발매 소식에 국내는 물론 일본 팬들도 들썩이고 있다. '판타스틱 걸즈'는 '걸즈 토크' '슈퍼 걸' '걸즈 포에버'에 이은 네 번째 일본 정규 앨범이자 소녀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 출시되는 정규 앨범도 일본 타워레코드 예약 판매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동반 인기를 얻고 있다. 타워레코드는 홈페이지에 카라의 컴백 소식을 톱토픽으로 다루면서 "한층 깊어진 음악성을 담은 앨범으로 돌아온다"고 소개했다.

카라는 28일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숙녀가 못 돼'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왕관을 쓴 여왕을 콘셉트로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들은 29일 새 앨범의 전곡 하이라이트 음원, 30일 '숙녀가 못 돼' 뮤직비디오 예고편을 각각 공개하고 다음달 2일 쇼케이스를 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보폭 넓히는 B.A.P

데뷔 2년만에 日 진출

남성 아이돌 그룹 B.A.P가 데뷔 2년 만에 일본 진출을 선언하며 공격적인 해외 활동을 이어간다.

이들은 10월 일본에서 국내 데뷔곡인 '워리어'의 현지어 버전을 발표한다. 데뷔 싱글 출시와 동시에 아레나 투어도 개최한다. 11월 19~20일 고베를 시작으로 27~28일 나고야, 12월 4~5일 도쿄 등 3대 도시에서 6회에 걸쳐 공연한다.

국내 정상급 가수들도 일본 데뷔 초에는 2000~3000석 규모의 홀에서 공연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처럼 데뷔와 함께 아레나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B.A.P는 퍼시픽 투어 라이브 온 어스를 진행하며 6월 일본에서 첫 콘서트를 열었다.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티켓 예매와 동시에 전석을 매진시킨 바 있다. /유순호기자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겹치기 출연 의도하지 않았다"

'왕가네 식구들' 이태란 언급
中팬 각양각색 쌀화환 보내

이태란이 SBS와 KBS2 주말 드라마를 정신없이 오가게 됐다.

SBS '결혼의 여신'에 출연중인 이태란은 28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KBS2 '왕가네 식구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제 의도와 상관없이 두 방송사 주말극에 출연하게 됐다"며 겹치기 출연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결혼~'이 20부작에서 32부작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왕가네~' 극본을 맡은 문영남 작가에게 혼란스러워할 지도 모를 시청자들을 위해 비켜야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문 작가께서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캐스팅 의지를 굽히지 않아 결국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태란과 문 작가는 2005년 '장밋빛 인생'과 2006년 '소문난 칠공주'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로 두 드라마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토·일요일 오후 10~11시 시간대에 방송되는 '결혼~'에서 부잣집으로 시집 간 차가운 성격의 아나운서를 열연중인 이태란은 2시간 앞서 방송될 '왕가네~'에선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생활 전선에 뛰어든 왕가네 둘째 딸 왕호박 역을 맡아 정반대의 두 캐릭터를 차례로 연기한다.

3대가 함께 하는 왕씨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릴 '왕가네~'는 '최고다 이순신'의 후속으로 31일부터 방송된다.

한편 이날 제작발표회장에는 이태란의 중국팬들이 각양각색의 쌀화환을 보내 와 눈길을 끌었다. 중국 드라마 '제금'과 '봉황모란'의 출연으로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태란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글을 올려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새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제작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출연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현경, 이태란, 이윤지, 김희정. /뉴시스

PHOTO

이하늬 볼륨몸매 드라마와 뮤지컬을 종횡무진하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 연기자 이하늬가 한 패션 월간지의 화보에서 거침 없는 포즈와 도도한 눈빛을 곁들여 '가을 여신'으로 변신했다.

▶ 볼륨 있는 몸매는 니트 롱원피스로도 가릴 수 없네요. /조성준기자

"실제 낮술 마시며 연기"

'우리 선희' 이선균·정유미

이선균과 정유미가 홍상수 감독의 신작 '우리 선희'에서 실제 음주 연기를 함께했다.

2010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오리종티 부문에 초청됐던 홍 감독의 전작 '옥희의 영화'에 이어 3년만에 다시 만난 이들은 오래전 헤어진 캠퍼스 커플로 변신해 대낮 치킨집에서 진짜 소주와 맥주에 치킨을 곁들이며 연기했다.

술 잘 먹기로 소문난 이선균은 촬영이 길어지면서 취기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정유미 역시 막판에는 탁자에 엎드려 잠을 청해야 했을 만큼 취해 버렸다.

홍 감독은 촬영장에서 배우들의 실제 음주 상황을 자주 유도하기로 유명하다. 또 시나리오를 촬영 당일 아침 출연진에게 나눠주는 것으로도 악명이(?) 자자하다. 많은 배우들이 홍 감독의 영화에서 날 것 그대로의 연기를 보여주는 이유다.

이선균, 정유미와 함께 출연한 정재영은 "선균이와 유미는 홍 감독과 자주 일해 봐 실제 음주 연기에 익숙하지만 난 처음이라 힘들었다. 무슨 내용을 찍을 지도 모르고 촬영장에 나와 진짜로 술을 마시며 연기하려니 처음엔 대사가 외워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더라"며 "그러나 촬영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됐다"고 귀띔했다.

지난주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우리 선희'는 다음달 12일 국내에서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star bag

세계영상위 총회 홍보대사

월드스타 **이병헌**이 다음달 2~9일부터 나흘간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영상위원회 총회(AFCI 씨네포지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8일 총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병헌은 다음달 4일 서울 시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 겸 위촉식에 참석한다. 준비단은 "'동서양 영화의 만남'이란 주제로 진행될 이번 총회의 의미를 알리는 데 이병헌이 적합하다"고 위촉 계기를 밝혔다.

'사랑의 톤즈'로 뮤지컬 도전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출신 **이미쉘**이 뮤지컬에 처음 도전한다.

뮤지컬 '사랑해 톤즈'의 홍보사는 28일 "이미쉘이 다음달 5~1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를 이 뮤지컬에서 남수단 톤즈의 미소녀 아북 역을 맡았다"고 전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미쉘은 'K팝 스타' 출연 당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항문질환 병원 모델로 나서

방송인 **노홍철**이 항문질환 병원의 모델로 나선다.

노홍철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발로 시작해서 네 발로 끝나다니 항문병원 광고 촬영. 나는야 항문질환 모델 1호. 내 인생이 미치도록 좋다"란 내용의 글과 함께 광고 사진 촬영 현장 사진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다.

'기황후'서 하지원과 대결

김서형이 MBC 새 월화극 '기황후'에 출연한다.

28일 소속사에 따르면 김서형은 다음달 21일부터 방송될 이 드라마에서 냉혹하고 고고한 매력의 황태후 역을 맡아 기황후 역의 하지원과 팽팽한 연기 대결을 펼친다. 김서형은 소속사를 통해 "1년 7개월만의 복귀로, 데뷔후 첫 사극이란 점에서 많이 긴장되지만 설렌다"고 밝혔다.

KT, 갤럭시S4 미니 단독 출시 KT는 삼성전자 갤럭시S4의 변형 제품인 갤럭시S4 미니를 단독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4.3인치 화면에 8.94㎜ 두께를 갖췄으며, 1.7㎓ 듀얼코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8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KT 제공

애플 '아이워치' 내년 하반기 출시될듯

애플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인 '아이워치'가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내년 상반기 출시될 것이란 시장의 예측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셈이다.

IT 전문지 디지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국제상업은행(CIMB)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이워치의 가격은 149달러(약 16만7000원)에서 229달러(약 25만6000원) 사이에서 책정되지만 생산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이 곧 공개할 iOS7 준비와 부품 수급 차질 때문에 아이워치의 생산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관련 삼성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는 다음달 4일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적금형 영어공부

태블릿PC 빠진 김대리

틈나는 대로 열공… '뇌새김''리플렉스' 등 직장인에 인기

직장인 이송미(32)씨는 최근 영어공부 재미에 푹 빠져있다. 바쁜 업무 탓에 부담스러웠던 학원수강 대신 업무 틈틈이 짬을 내 공부할 수 있는 '적금형 영어공부법'을 선택한 덕분이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통해 틈나는 대로 공부에 몰입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하루 1시간 공부도 가능하다.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 '적금형 영어학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영원무 아인에 학습기'로 유명한 위버스마인드의 뇌새김이 대표적이다. 태블릿PC 기반인 이 학습기는 영어 단어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읽으며 뇌에 자연스럽게 각인하는 학습법이 특징이다. 100여종이 넘는 미국 현지 교과서의 문장과 학습방법을 적용했으며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됐던 영어문장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최근 출시한 '뇌새김 토익스피킹'의 경우 2주에서 2개월까지 원하는 학습 기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단기간 내에 토익스피킹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로제타스톤의 영어 회화 집중 트레이닝 프로그램 '리플렉스'도 인기다. 이 프로그램은 발음교정 훈련, 다양한 상황에 따른 회화 연습, 원어민 코치와 일대일 라이브 화상대화 등을 통해 하루 30분간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는 물론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어 편하다.

e북을 통해 원서읽기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스24 전자책 크레마터치의 'SKY에디션'은 영어 필독 고전 60권을 포함한 110권의 전자책을 담고 있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도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엄선된 고전을 원서로 읽으며 인문학 교양과 영어 실력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하이네켄 한정판 맛보세요"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이 28일 서울 명동 아이스크림에서 세계적인 댄스 이벤트 '2013 하이네켄 드림센트 센세이션'을 기념해 '센세이션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병 표면에 UV잉크가 특수처리 돼 있어 UV조명에서 숨겨진 디자인이 나타난다. 한편 11월 30일 열리는 2013 하이네켄 드림센트 센세이션의 티켓 정식 예매는 다음달 2일 오후 12시부터 인터파크(www.interpark.co.kr)에서 시작된다.

바알간 레드 가을 타나봐

여름 끝자락 선글라스·핸드백 등 빨강색 소품으로 '포인트'

여름 끝자락의 색은 레드다. 지금 패션매장에 들른다면 단언컨대 '레드'를 갖지고 나와야 한다.

패션 전문가들은 "비비드한 느낌의 '핫 레드룩'은 여름뿐 아니라 가을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라며 "빨강색은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보다 작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더욱 멋스럽다"고 귀띔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선글라스는 멋쟁이들의 잇 아이템. 올해는 독특한 프레임의 파격적인 선글라스가 인기다. 마크제이콥스의 레드 선글라스는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해주면서 청바지와 디셔츠 차림의 심플한 패션에 포인트가 된다.

레드 소품으로 가방을 택했다면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택해 스타일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루이까또즈 삼백인라인 레드 보트백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보던한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운 룩에 잘 어울린다. 화이트나 블랙 등 모노톤의 패션에 매치하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발끝'에 힘을 주는 건 어떨까. 이번 시즌은 장시간 신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웨지힐이 아찔한 하이힐을 밀어냈다.

게스의 레드 웨지힐은 스커트나 쇼트팬츠와 코디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끈에서 시작된 스트랩이 발목을 감싸 섹시한 분위기 마저 감돈다.

/박지원 기자 ssr@metroseoul.co.kr

제주도 푸른밤 '달빛 샤워'

제주신라 문라이트 패키지

늦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제주신라호텔이 나이트 무비·문라이트 스위밍, 문라이트 트레킹 등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밤을 즐길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갖춘 '문라이트 서머 패키지'(50만~56만원, 세금·봉사료 별도)를 선보인다.

언제든지 내 차처럼 사용 가능한 S카와 라운지S에서 무제한으로 음료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패키지 투숙객들은 밤하늘에 드리워진 야자수와 제주의 달빛 아래서 라이브 음악 공연을 감상하며 자정까지 '문라이트(달빛) 스위밍'도 즐길 수 있다. 9월 1~15일 패키지 투숙 고객들에게는 비치백과 비치타월을 선물한다. 문의:www.shilla.net/jeju 1588-1142

패셔니스타 '두타 총집결'

예비디자이너·대학생 콘서트

패션전문점 두타가 최근 라마나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예비 디자이너가 강연과 부대행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 '제1회 패셔니스타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산바이 곽현주·곽현주 컬렉션 등의 대표로 활동 중인 곽현주 디자이너가 자신의 성공스토리와 실무 디자인의 세계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에선 패셔니스타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두타가 오픈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NEXT TOP D'를 통해 선발한 응모자 가운데 패션디자이너 150명을 선정해 초청했다. 또한 주요 대학의 패션학과 학생들과 23개 패션스쿨 아카데미 학생들이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두타 측은 밝혔다.

재사용 차 부품 전문쇼핑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인 '자동차 재사용부품 이용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자동차 재사용부품 전문 쇼핑몰인 G-parts 쇼핑몰(www.gparts.co.kr)을 오픈했다.

협회는 G-Parts 쇼핑몰을 통해 재사용부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원하는 부품이 아닐 경우 언제든지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재사용부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정책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1566-8209

목우촌 할인몰 'M마트' 오픈

농협목우촌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할인쇼핑몰 'M마트'를 최근 오픈했다. 농협목우촌이 직영하는 선물세트 판매 전용 온라인 할인몰로 '100% 우리고기'만 사용해 만든 38가지 다양한 목우촌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25% 할인과 무료배송 등의 행사가 진행 중이다. 문의 www.m-mart.co.kr

'다이어트 차' 마테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라베시 기초 5종 출시

'다이어트 차'로 알려진 마테가 올여름 화장품 원료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주로 마시는 음료에 적용되던 '마테'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테를 담은 화장품이 여럿 출시됐다.

최근 라라베시는 마테자를 활용한 토너·미스트·클렌징크림 선비이스 기초 화장품 라인 5종을 잇따라 선보였다.

실제로 마테에는 녹차의 4배가 넘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카엘의 '예바마테 티 젤크림'은 예바마테 성분을 함유한 크림이다. 가벼운 텍스처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마테의 풍부한 영양성분이 피부에 생기를 주고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ssr@metroseoul.co.kr

"수능생 힘내세요"…강강술래가 쏜다

사골곰탕 등 최대 34%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응원 이벤트를 마련했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원기회복과 기력보충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과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한우떡갈비, 한돈너비아니를 최대 34% 할인 판매한다.

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900원, 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5900원에 판매한다. 곰탕과 육포 모두 방부제와 색소, 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았다.

100% 한우갈비살을 사용한 '진한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아미노산과 비타민E가 풍부해 두뇌 활성을 돕고 허약체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 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글을 올리면 100% 천연원료 우유에서 짜온 추출된 술가 유이두고 유청단백질과 탈모 지료 예방에 좋은 디터스필프의 유피톤스 액티브C 샴푸·로션, 브로드웨이 흥행 뮤지컬 '메비뉴Q' 티켓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구석구석

◆남양주 다산문화제
날짜 9월 5~8일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유적지

다산문화제는 남양주 출신의 조선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 위민 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제다. 올해는 '한눈에 보는 다산 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산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역사재현 연극, 줄타기, 취타대 및 유생행렬, 목민심서 성독이 진행되며 인간조각, 마재투호 답사, 철릭 걷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원주한지문화제
날짜 9월 5~9일
장소 강원도 원주시 원주한지테마파크

'한지로 통하다'를 주제로 대한민국한지대전 수상작 전시, 일본·캐나다 등 국외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행사와 각종 한지체험 학습행사 등이 개최된다. 또 한지패션쇼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원생, 초·중·고교 학생들이 만든 1만개의 한지등 전시, 한지작가와 한지작품 만들기, 종이뜨기 시연, 한지 심포지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괴산고추축제
날짜 9월 5~8일
장소 충북 괴산군 문화체육센터 일원

'시진삼이냐다, 더 매운 고추 이야기'란 주제로 열리는 괴산고추축제는 충북씨름왕 선발대회와 괴산유통문화제와 통합 개최된다. 우수 농산물 경락 경매와 고추 달린 물고기 잡기, 괴산사랑 골든벨대회, 매운 고추 먹기 대회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 고추 전시회, 청결 고추 품평회 등의 행사도 마련된다.

'알알이' 향도 맛도 탱탱

내일부터 사흘간 '영동 포도축제'… 와인 투어도 풍성

전국 최대 포도 생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포도 출하 성수기에 맞춰 영동 포도의 향과 맛에 흠뻑 빠질 수 있는 '2013 영동포도축제'가 펼쳐진다.

지난 2004년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영동포도축제는 올해 충청북도의 최우수축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영동포도와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만나보자.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콘서트, 뮤지컬 갈라쇼, 마당놀이(병자전), 마술 퍼포먼스, 불꽃놀이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레이저 LED 퍼포먼스가 축제 기간 영동의 하늘을 수놓는다.

또 누구나 영동포도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포도 체험존 ▲운놀이 체험존 ▲만들기 체험존 ▲와인&休존 ▲어린이체험존 등에서는 포도 밟기, 포도 낚시, 영동포도 클라이밍, 포도빙수·초콜릿 만들기, 와인족욕 등 30가지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9월1일 오전 9시에는 포도향기와 함께하는 '영동포도 전국마라톤 대회'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관광객 배려하는 축제의 장

포도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최 측의 배려도 눈에 띈다.

우선 포도축제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전국 여행사 버스투어가 운영된다. 관광열차는 축제장과 포도따기 체험장, 연계관광지, 농촌체험마을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화신리 포도따기 체험장에서 진행되는 포도따기 체험은 직접 딴 포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전문 계단판이 배치되고 주차장과 영동역 광장 등에는 물품 보관소를 마련했다.

게다가 당도 14브릭스 이상을 자랑하는 당일 수확한 싱싱한 영동포도도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영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와인 테마여행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와인 관련 행사들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직접 나만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와인만들기와 와인테이스팅, 와인코리아 공장 견학 등이 마련됐으며 와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와인 강의, 영동포도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와인족욕체험도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축제기간을 비롯해 연중 와인트레인 테마여행에 진행되는데 열차 안에서 참굿한 와인을 마시고 와인제조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열차는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날짜 8월30일~9월1일(금~일)
-장소 충북 영동군 일원
-문의 영동군청 농정과 043)740-3471

난계의 국악 '귀가 번쩍'…민주지산 피톤치드 '코가 향긋'

영동에는 포도만 맛있는 것이 아니다. 무더위와 서늘한 바람이 공존하는 여름과 가을의 길목에서 영동의 참맛을 즐겨보자.

◆난계의 향기를 찾아서

영동은 난계 박연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그의 정원에 난초가 많았기 때문에 박연의 호가 난계로 불려졌는데 영동에는 그만큼 박연을 추모하는 장소도 많다. 지난 1973년 건립된 난계사당을 중심으로 난계사, 난계 묘소와 난계 생가,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등이 있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생생하게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다.

◆양신팔경

금강을 끼고 소나무 숲과 기암괴석, 계곡이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 양산팔경. 천태산 자락에 위치한 신라 때의 고찰로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에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안위된 삶을 기원한 곳인 영국사와 신선이 노닐었다는 강선대가 대표적이다. 또 금강과 영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봉산과 용이 승천했다는 용암을 비롯해 봉황대, 함벽정, 여의정, 자풍서당 등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천팔경

월유봉 일대와 절묘한 산수를 일컫어 한천팔경이라 하는데 이곳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한천정사를 지어 강학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한천팔경의 시작은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인 월유봉과 산양벽으로 꽃과 나무가 무더기로 있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화헌악과 용언대가 이어진다. 청학굴, 사군봉, 법존암도 놓칠 수 없는 풍경을 연출한다.

◆민주지산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야영테크, 오토캠프장이 갖춰져 숲속에서 숙박이 가능하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삼림욕장, 건강지압을 위한 맨발숲길, 등산로, 산악자전거 코스 등이 마련돼 있다. 또 민주지산을 탐방가는 길에서는 구절초, 꽃며느리밥풀, 투구꽃 등 야생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황재용기자

다저스 매팅리 감독 재계약 확률 99%

류현진의 소속팀인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돈 매팅리(사진) 감독이 재계약 가능성 1위로 꼽혔다.

미국 CBS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재계약이 임박한 11명의 메이저리그 감독들이 자리를 지킬 확률을 소개하면서 매팅리의 재계약 확률은 99%로 전망했다.

매팅리 감독은 시즌 초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꼴찌를 달리던 당시 경질설에 시달렸고 실제 스탠 카스텐 사장과 해고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등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다저스가 전반기 끝무렵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지구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됐다.

CBS스포츠는 "2014시즌까지 옵션 계약이 걸려있지만 조만간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매팅리 감독에 이어 뉴욕 양키스의 조 지라디 감독이 재계약 확률 97%로 2위에 올랐다.

양키스 감독으로 6시즌을 보내며 올해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감독과 계약기간을 끝까지 지키는 양키스의 특성상 내년 시즌도 감독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재계약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25% 확률의 시애틀 매리너스 에릭 웨지 감독으로 꼽혔다.

/유순호기자 suno@

추신수가 2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5회 통산 100번째 홈런을 치고 홈플레이트를 밟고 있다. /AP 연합뉴스

8년 만에 100-100 클럽

<홈런> <도루>

추신수, 통산 100호 홈런 '쾅'…이치로는 13년 만에야 달성

추추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마침내 메이저리그에서 100홈런-100도루의 금자탑을 쌓았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5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조 켈리의 7구째 시속 137㎞짜리 체인지업을 때려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7번째이자 통산 100번째 홈런이다.

26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통산 100번째 도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8년 만에 100-10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00-100 클럽 가입은 아시아 선수 중 일본인 타자 이치로 스즈키(40·뉴욕 양키스)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다.

2000년 시애틀과 계약하며 미국에 진출한 추신수는 2005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2006년 클리블랜드로 이적해 7월 28일 친정팀 시애틀을 상대로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신고했다. 2006년 3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이듬해 팔꿈치 수술로 6경기만 뛰며 홈런 없이 시즌을 마쳤지만 2008년부터 호타준족의 위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2008년 14개의 홈런을 때렸고 2009년(20홈런 21도루)과 2010년(22홈런 22도루)에는 3할 타율에 20홈런-20도루를 2년 연속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톱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에는 음주운전 파문과 부상 탓에 8홈런 12도루로 부진했지만 지난해 16홈런-21도루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추신수가 이치로를 제치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0-200 클럽에 이름을 올릴 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치로는 현재 110홈런 470도루를 기록 중이며 13시즌 만인 지난해에야 100-10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추신수는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때렸고 시즌 타율을 0.274에서 0.275로 끌어올렸다. 신시내티는 1-6으로 패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스완지 "기성용 임대만 가능"

선덜랜드행 가능성 커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기성용(24·스완지시티·사진)이 이적 대신 임대 형식으로 팀을 옮길 전망이다.

웨일스 지역 신문인 사우스웨일스 이브닝 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스완지시티가 기성용의 이적을 배제하고 임대로 보내는 방안만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 시즌 존조 셸비 등의 영입으로 입지가 줄어든 기성용이 출장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적을 요청했다"며 "선덜랜드로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도됐던 에버턴으로 갈 가능성과 관련해선 "에버턴이 스완지시티에 이적을 문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조성준기자 when@

'무패' 서울-전북 무승부

8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절정의 상승세를 보인 FC서울과 전북 현대의 맞대결은 결국 1-1 무승부로 끝났다.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경기에서 전북은 후반 12분 케빈의 골로 기선을 잡았다. 그러나 4분 뒤 서울의 에스쿠데로의 해딩슛이 빛나가자 데얀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왼발 슛을 성공시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경기 결과 서울은 7승2무, 전북은 6승3무를 기록했다. 두 팀은 최근 9경기 무패를 이어갔다.

이날 시즌 10호골을 터뜨린 데얀은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7시즌 연속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했다. 김도훈 강원 코치가 지니고 있던 6시즌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순호기자

넥센, LG 잡고 3위 도약

넥센 박병호가 28일 LG와의 경기에서 8회 역전 투런홈런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넥센이 이틀 연속 서울 라이벌 LG를 잡고 또 다른 서울 팀 두산과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넥센은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와의 경기에서 박병호의 역전 투런 홈런을 앞세워 4-3으로 승리했다. 넥센은 55승 2무 46패로 이날 경기가 없던 두산과 함께 3위에 올랐다. 넥센은 LG전 3연승과 함께 상대 전적 10승 5패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박병호는 이날 25호포를 날리며 SK 최정을 제치고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선두 삼성도 8위 NC에 1-9로 일격을 당했다.

광주구장에서는 KIA가 김주형의 역전 적시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5-4로 눌렀다.

SK는 인천 문학구장에서 한화를 4-3으로 꺾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8일

■ 잠실

팀	1-3	4-6	7-9	계
넥센	010	010	020	4
LG	000	030	000	3

■ 문학

팀	1-3	4-6	7-9	계
한화	001	002	000	3
SK	020	000	101	4

■ 대구

팀	1-3	4-6	7-9	계
NC	002	040	030	9
삼성	000	000	001	1

■ 광주

팀	1-3	4-6	7-9	계
롯데	301	000	000	4
KIA	030	010	01X	5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부탁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Put your books down on the table
Would you mind feeding the cat for me?
If you have time, will you call me tomorrow?
Will you do me a favor?
Please count the chairs in that room.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A Would you help me 들어올리다 this heavy box?
B Yes, I'll help you.

정답 lift

1 Would you mind [feeding the cat / calling Mr. Cooper] for me?

2 Please count [the chairs / the desks] in that room.

New English 900 강의 기획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There is & There are

There is +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셀 수 없는 명사
There are +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1. There is a lot of traffic in Seoul. 서울에는 많은 차량이 있어요.
2. There isn't any food left.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3.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우리 가족은 네 명이에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______ employee is required to complete the safety program before beginning work on the assembly line.
(A) Every (B) All
(C) Few (D) Other

02. The Sanderson Company uses premium shipping ______ that can be modified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customers.
(A) contains (B) contained
(C) containing (D) containers

01. 정답 (A) Every

02.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속 장소 말하기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restaurant.
This picture must have been taken at a restaurant.
This is a picture of a restaurant.

This is a picture taken in the park.
This picture must have been taken in the park.
This is a picture of a park.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